

교직 사회와 트라우마:

춤 제작 및 공연을 통한 공감과 치유성에 관한 사례연구

이정연*

I. 들어가며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춤으로의 공감, 그리고 치유성

I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I. 들어가며

최근 이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 잠재돼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교권 상실, 학교 교육의 일탈, 더 나아가 교육 현장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사회 현상을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뒤늦게나마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9월15일 의결된 ‘교권 보호 4법’이 그것인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 그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2023.09.01). 미성숙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급박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교사들의 깊은 절규를 해결하기엔 더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연구와 제도가 뒤따라야 할 일이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혹은 상처가 무엇인가에 관해 그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권 관련 연구만 보더라도 교권 침해의 연구가 전체의 74%에 해당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임정미, 유기웅, 2021). 그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도 빈번한 교육 현장의 문제, 즉 학부모로부터의 극심한 민원과 반복적 괴롭힘은 교사의 주업무인 교수행위를 가리고 교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었다. 전화기만 울려도 섬뜩하고, 자질구레한 학생폭력이 발생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말은 가히 교사들의 정서가 트라우마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연쇄적으로 발생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교사 개인은 물론, 집단적 트라우마와 심리적 외상을

*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ballet65@snue.ac.kr

더하는 참사였다.

엄정은, 이재용(2019)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 대처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감정을 분노, 답답함, 짜증, 황당함, 곤란함과 같은 정서적 혼란에 공통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구체화하면, 첫째, 교사의 권위 몰락과 이에 따른 분노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와 대다수의 교사들은 퇴근 후 걸려오는 학부모로부터의 전화, 학교 폭력의 문제 해결에서 교사를 최극단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몰상식적 태도는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교사의 권위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둘째,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난맥, 그리고 이에 따른 고충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이나 그 밖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 본위와 이기심을 전제하기에 교사의 설명이나 해법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교수활동 외의 과중한 업무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교직 사회를 향한 내·외부의 압력과 반복적인 개혁 요구들, 이로 인한 업무의 과부하(정바울, 2011)에 관한 문제는 교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그간 누적되어 온 문제들, 더구나 최근의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교육 현장의 변화와 교사의 삶을 조명해야 할 필요를 실감한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교사의 상처를 보듬고 회복시켜야 할 절박함에 공감한다.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서 본 연구자는 춤이 갖는 치유성(이애주, 2016)에 주목하여 교사들과 함께 춤을 제작하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체험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체험은 교사들에게 지각된 트라우마 극복에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고자 했으며, 아울러 공연을 관람한 여러 층의 관객이 느낀 정서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무엇보다 교사들 자신의 정서적 치유, 체험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기에 전문적인 트라우마의 치료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차원의 질적연구로 접근하였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다소의 부족함과 같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한다. 다만 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의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길 기대해 본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초등교사 교육대학원생 6인의 무용 창작 및 공연 경험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교직 사회에서 야기된 사회적 문제와 이로 인한 교사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춤 창작 및 공연은 출연자, 관람자에게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고자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3년 7월 출연자 선정과 함께 7월 20일~9월 5일까지 약 2개월간 주 2회 가량의 연습, 9월 6일 공연을 실행하였다. 공연 이후 즉시 출연자 및 관람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학생 참여자로부터의 감상 보고서를 수거 자료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의 과정으로 교직 및 교육 사회 관련 선행연구 자료와 문헌을 활용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교사 참여자(출연), 학생 참여자(관람), 일반 참여자(관람)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모집하였다. 교사 참여자의 경우 연구자가 소속된 A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생들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비확률적 표집(non-probabilistic sampling) 및 목적 표집법(pro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2023년 7월 본 공연과 연구에 대한 구체적 소개를 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교육대학원 원생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6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참여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다 보니 참여자 모두 여성으로 교육경력 4~7년의 20대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무용 경험 유무의 조건에서는 과거 개인적으로 무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참여자 2명, 무용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동아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표 1). 유경험자 가운데 1명은 현재 춤 관련 교사연구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학생 참여자의 경우 교육대학교 학생 2학년으로 본 연구자가 운영하는 2개의 무용 강좌 수강생 45명으로 한정하였다. 심화전공 영어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 학생들이며 남학생 15명, 여학생 30명으로 구성되었다(표 2). 일반 참여자의 경우 본 공연을 관람한 관객 가운데 인터뷰에 응할 의지가 있는 참여자 5인으로 성별 및 연령, 직업 등의 다양한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표3). 모든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1(교사 출연자)

번호	이름	성별	교육경력	무용학습, 또는 무용동아리 경험 유무	자료수집 방법
1	정유미	여	6	유	심층면담, 그룹 인터뷰, 전화 인터뷰
2	신미란	여	7	유	
3	성주영	여	5	유	
4	양정수	여	4	유	
5	김하연	여	4	무	
6	김아라	여	4	무	

〈표 2〉 연구 참여자2(초등 예비교사 학생 관람자)

번호	학과(심화전공)	성별	자료수집 방법
1~21	영어교육과 2학년	남 9명, 여 12명	보고서, 그룹 인터뷰
22~45	유아특수교육과 2학년	남 6명, 여 18명	

〈표 3〉 연구 참여자3(일반 관람자)

번호	이름	성별	연령	직업	자료수집 방법
1	박지우	여	60	교수	심층면담
2	원상철	남	30	초등교사	
3	이경렬	남	57	주부	
4	이윤주	여	40	학부모	
5	한아름	여	10	초등 3학년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자가 직접 무용 창작 및 공연 전반에 걸쳐 참여하였으며, 자료 수집으로는 심층면담, 그룹 인터뷰, 전화 인터뷰, 공연 감상 보고서, 영상 및 사진 자료 등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공연 종료 1주 이내의 시점에서 개인당 20분 가량 이루어졌다. 그룹 인터뷰는 공연 관람 직후 수업에서 즉각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공연 감상 보고서 역시 1주 이내에 작성, 수거하였다. 연구의 마무리 과정에서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전화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수집된 심층면담 자료는 녹음, 전사의 과정을 거쳤고, 이후 부호화(coding)작업을 통해 연구 목적에 초점을 둔 분석으로 진행하였다(J. P. Spradley, 1979).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윤리를 보장하기 위해 삼각검증(triangulation),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s),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아울러 무용학 교수 1인, 질적연구 전문가 1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과정과 결과의 조언을 구하였다.

III. 춤으로의 공감, 그리고 치유성

본 연구에서 진행된 춤 제작 및 발표는 연구자의 연출, 참여자들과의 공동 안무 및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작품 제목은 〈우리, 지난 여름을 꺼안았다〉이며 총 20분 길이의 3장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한 교직 현장의 사건, 교사들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하였다. 제1장은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교직 생활의 모습을 순수하고 간결한 움직임으로 상징화했다. 제2장은 교직 현장에서의 갈등을 주제로 하였으며, 특별히 한 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이를 도우려는 동료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제3장은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는 교육자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등불처럼 묵묵하게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러한 내용의 작품 제작과 공연을 체험한 교사들, 공연을 감상한 학생, 부모 등 다양한 입장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감, 그리고 춤이 갖는 치유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탐색할 수 있었다.

1. 이야기되어야 하는 상처

Degloma(2009)에 따르면, 집단 트라우마에서 외상적 사건은 시공간적으로 확장되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투사되며(즉, 시간적 확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집단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즉, 공간적 확장)(채윤경 재인용, 2014). 많은 교사들은 안타까운 최근의 사태를 오히려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회피의 증상은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트라우마 맞죠. 계속적인 교사들의 소식에 감정이 전이가 되어서인지 한동안 저 힘들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학부모님 때문에 화장실 가서 울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저는 피해가는 스타일 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었어요.** 무대에 딱 올라가니 그게 참 희한한 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비울 수 있더라고요.(양정수, 심층면담)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데 학교엘 나가도 공중에 붕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딱 우울증 환자가 돼 있더라구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학부모들 말도 안 되는 민원 때문에 정말 미치겠는데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르던 참이었어요.** 이 공연 준비하면서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신미란, 심층면담)



〈그림 1〉 제2장의 장면 11)



〈그림 2〉 제2장의 장면 22)

놓여진 상황을 온전히 드러내어 놓고 마주하는 일이 출연자 교사들에게 있어서 치유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관객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늠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가 있다. 자칫 예민한 이 사태의 본질, 혹은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였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이야기되어야 하는 상처’의 용기와 가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공연 보는 내내 교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나 미안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픈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 과연 춤공연에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 염려가 정말 기우였다는 걸 알았죠. **아프다고 소리칠 줄 아는 것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저 교사들의 춤은 그냥 몸짓이 아닌, 정말 고차원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박지우, 심층면담)

2. 공감과 소통, 그리고 연대

심층면담과 감상 보고서 등 모든 자료에서 가장 빈번한 어휘를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코 ‘공감’이었다.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삼은 만큼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으나 그 외에 의미 있는 요인은 출연자가 교사 당사자라는 점이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의미를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달력과 호소력이 더욱 발화되며 공감을 이끌어 내었음을 알 수 있다.

1) 이정연, 우리, 지난 여름을 겪었다, 2023. 09. 06.,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2) 이정연, 우리, 지난 여름을 겪었다, 2023. 09. 06.,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무대가 호소력이 짙었던 이유는 현직교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무대를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작 하나하나에 그들의 사연이 담겨있었고 교사들이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을 춤으로 표현하여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학생, 감상 보고서)

생사의 기로에 서서 절망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무용수가 나타나 교사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감정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했던 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학생, 감상 보고서)

춤으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깨달음이었어요. 공연 중간의 간단한 멘트가 이 주제를 소개하는 전부였는데 솔직히 보는 내내 공감, 공감, 또 공감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기에 이 순간이 잘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영어교육과, 그룹 인터뷰)

박수정, 한은정(2021)은 교사론 수업 과정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교사의 ‘뒷모습’, ‘나름의 고충’, ‘회의감’ 같은 인식 생성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피상적으로 인식하는 교사의 외연이 전부인, 어쩌면 타인의 삶을 헤아리는 능력과 마음의 여유가 상실된 이 시점에서 교사의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비롯한 교직 사회 구성원 간의 공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힘이며 조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관객 참여자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면담 자료는 이러한 공감과 소통, 그리고 구성원의 연대를 매개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 보는데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나고 선생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다른 선생님이 울고 있는 선생님을 말리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중략- 저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한아름, 심층면담)

3. 위로와 회복, 그리고 공동체

교사들은 본 과정을 통해 심리적 상처로부터 상당한 위로를 받았으며 일정 부분 회복의 순간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장은 물론, SNS 공간의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그간의 외로웠던 순간들이 상쇄되는 경험을 하였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준비하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 메시지를 다들 알아보더라구요. 댓글로 모두 백퍼 공감한다고, 감동이라고 하더라구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고 정말 따뜻했어요.(양정수, 심층면담)

현재 당면한 교육 현장의 문제에서 ‘공동체’로서의 의식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교직 사회의 지난한 과제를 푸는 실마리가 어쩌면 공동체 의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간의 격려와 화해, 그리고 도전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이 특별한 게 우리 **교육공동체**가 모두가 모였잖아요. 교사, 학부모, 학생, 교수... 우리는 이렇게 **늘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어요.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요. 마치 마지막에 들고 나온 등불처럼 그게 참 훈훈했어요.(성주영, 심층면담)

신규때 학폭문제로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때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동료선생님들한테 오히려 상처를 받았어요. 작년부터는 교장, 교감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맘 편히 지냈고, 그 바람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냈다는 걸 오히려 몰랐어요. 같은 교사로서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지냈다는 것. 저한테는 그게 **트라우마**였어요. 죄책감, 부채의식. 저한테는 이번 공연이 죄책감을 털어내는 시간이었어요.(성주영, 심층면담)



〈그림 3〉 제3장³⁾

학교 무용실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다 리허설을 보게 됐었고, 실제 공연을 봤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리허설 때 아무 설명 안 해주셨는데도 무얼 말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아이도 제 다리를 꼭 붙들고 고개를 파묻은 채로 한동안 그러고 있더라구요. 선생님들 마음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우리 부모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이윤주, 심층면담)

IV. 나오며

사실상 현재 당면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과 교직 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우려(신동아, 2023, 11, 01)를 종종 발견한다. 그 문제를 둘러싼 배경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사회의 기본가치나 이념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 개혁에 대한 접근 방법, 추진과정에서 오는 정책적 우선 순위나 개혁전략의 문제, 또는 개혁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에 대한 이해대립이나 논쟁점들(오정란, 2001)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모든 개체가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부지런히 공조해야 할 순간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를 위한 작은 걸음으로써 교사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와 위로의 필요성을 전제하며 본 연구를

3) 이정연, 우리, 지난 여름을 겪었다, 2023. 09. 06.,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진행하였다. 교사들의 춤 창작 및 공연을 통해 교사 자신, 그리고 이를 바라본 관객 참여자들로부터 몇 가지의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하는 상처’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각자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었다. 둘째, 교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학생, 교사, 학부모, 기타 사회 구성원 간의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교사로 하여금 위로와 회복의 순간을 견인하였다.

이상의 긍정적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심층 면담 및 감상문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논의된 연구이기에 춤의 역할, 기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 Lincoln, Y. S., and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Smyth, J. (2011). *The disaster of the 'self managing school' - genesis, trajectory*. undisclosed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박수정, 한은정(2021) 「교사론」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 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1(4), 1505-1525.
- 엄정은, 이재용(2019). 초등교사의 학부모 민원 대처 과정에 관한 체험분석. *초등상담연구*, 18(1), 87-115.
- 오정란(2001). 교직사회 개혁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논쟁점, 그리고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11(1), 1-31.
- 이영호(2020). 위험 사회와 공동체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학-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8, 217-255.
- 이정연(2022). 대학교 춤동아리 활동 경험과 초등체육 표현영역 교사역량.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1(1), 147-160.
- 임정미, 유기웅(2021). 교권(敎權)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최근 10년(2011-2020)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8(3), 251-275.
- 정바울(2011). Lortie의 '교직사회: 교직과 교사의 삶' 재조명: 학교 변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 교육연구*, 28(4), 167-188.
- 정애경, 공운정, 황매향, 김혜숙, 여태철(2019).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개입방안 탐색. *초등상담연구*, 18(2), 235-257.
- 조홍식(2020). 중등 체육교사가 직업적 삶 속에서 겪는 마음의 상처와 치유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407-423.
- 진주은(2020). 트라우마를 통해 바라본 회복의 과정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최윤경(2014). 집단 트라우마와 마음의 치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7-79.
- Degloma, T. (2009). Expanding trauma through space and time: Mapping the rhetorical strategies of trauma carrier grou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2, 105-122.31-3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3. 09. 15).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342>, 2024. 03. 25.>.
- 신동아(2023. 11. 01.). “학부모가 약자라고?” 진보는 왜 교권을 외면했나: <<https://shindonga.donga.com/politics/3/01/13/4510903/1>, 2024. 03. 25.>.

논문투고일 2024. 02. 15.

심사일 2024. 02. 27.

심사완료일 2024. 03. 07.

Teaching Community and Trauma: Exploring Empathy and Healing through Dance Creation and Performance

Lee, Jeongye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healing potential of dance by engaging teachers in the entire process of creating and performing dances on stag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these experiences in overcoming perceived traumas among teachers and to analyze the emotional meanings felt by audiences of various backgrounds who watched the performances. Several educational outcome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To sum up, first, it w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who they were by bringing up the ‘wounds that must be told,’ even if they would not want to talk about them. Second, it served as a catalyst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eachers’ lives, and foster empathy and communication for solidarity. Third, it was a moment of comfort and recovery for teachers through reflection among students, teachers, parents, and other members of society. Hopefully, this study will provide additional resource on the role of dance in healing the difficulties and wounds of people from various strata of our society.

Keywords: Dance(무용), Teacher community(교직 사회), Trauma(트라우마), Empathy(공감), Healing(치유성)